

백제 성왕과 대통사

- 대통사지의 역사적 의미 -

노 중 국*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한국고대 사찰에서 대통사의 역사적 의미 |
| II. 대통사의 창건과 성왕의 새 정치 표방 | 1. 삼국의 사찰 |
| 1. 건립 주체와 건립 시기 | 2. 대통사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
| 2. 백제와 양 무제 | IV. 앞으로의 과제 : 맺음말에 대신하여 |
| 3. 성왕의 새 정치 표방과 대통사 | |

국문 요약

대통사는 527년 백제 성왕에 의해 세워졌다. 최근 발굴조사에 의해 백제 유물이 출토된 공주시 반죽동의 대통사지가 대통사가 세워진 곳임이 밝혀졌다.

성왕은 “백제를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버지 무령왕의 뜻을 이어받고, 양나라 무제가 동태사를 건립하여 불교치국책(佛敎治國策)을 편 것을 본받아 새 정치를 펴기 위해 대통사를 세웠다.

대통사는 한국고대 사찰 가운데 창건 주체, 시기, 위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사찰이어서 한국고대 불교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대통사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학술발굴을 해야 한다.

주제어 : 대통사, 동태사, 양 무제, 불교치국책, 새 정치

I. 머리말

『삼국유사』에 의하면 대통사는 527년에 웅진에 세워진 사찰이며, 창건 주체는 신라 법흥왕이다.

그러나 당시 웅진은 백제 왕도였기 때문에 이곳에 신라가 사찰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대통사는 527년이라는 연대에서 미루어 백제 성왕이 재위 5년에 세운 것으로 고쳐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대통사는 백제가 세운 사찰인 것이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공산성 왕궁관련 지구(구 성안마을)에서 출토된 벼루이다. 이 벼루 밑바닥에 ‘대통사’가 새겨져 있다. 이는 공주가 왕도였을 때 대통사가 이미 지어진 것을 보여준다. 대통사 창건 목적은 양 무제를 위한다는 것이었다. 대통사를 세울 당시 양 무제는 살아있었다. 때문에 양 무제를 위한다는 것은 명복을 빈다기보다는 양 무제가 이루고자 한 뜻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사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의 하나는 대통사의 위치가 어디냐였다. 대통사지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 결과 ‘大通’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지만 그 이외에 백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이고 그나마 다른 곳에서 옮겨진 것이어서 현재의 위치를 대통사지로 확정하기 어려웠다.

2018년 1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공주시 반죽동의 대통사지 발굴은 백제 불교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발굴이다. 이 발굴에서 통일신라 층 아래에서 大通의 ‘通’번이 새겨진 기와를 비롯하여 백제 당시의 유물이 대거 출토되어¹⁾ 대통사의 위치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고학 자료가 문헌 기록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대통사는 우리나라 고대 사찰 가운데 사찰 이름, 창건 시기, 창건 주체, 창건 목적, 창건 위치 등이 분명한 가장 빠른 사찰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백제 성왕이 대통사를 창건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성왕의 “새로운 정치의 표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고대불교사에서 대통사가 가지는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학계와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필자의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해 두기로 한다.

II. 대통사의 창건과 성왕의 새 정치 표방

1. 건립 주체와 건립 시기

대통사의 존재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가 유일하다.

又於大通元年丁未 爲梁帝創寺於熊川州 名大通寺[熊川卽公州也 時屬新羅故也 然恐非丁未也 乃中大通元年己酉歲所創也 始創興輪之丁未 未暇及於他郡立寺也]²⁾

1)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8, 「공주 반죽동 한옥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보도자료」.

2) 『삼국유사』 권제3 흥법제3 원종흥법 염축멸신조.

위의 기사는 본문과 細注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삼국유사』 편찬자인 일연 스님이 참고한 자료에서 옮긴 것이고, 세우는 일연 스님이 이 본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붙인 것이다. 본문에 의하면 대통사를 세운 주체는 신라 법흥왕이고, 건립 목적은 양나라 무제를 위한 것이고, 세운 연대는 대통 원년(527)이고, 세운 장소는 웅천주이다. 이에 대해 일연 스님은 창건 주체, 창건 목적, 창건 장소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창건 연대에 대해서는 ‘중대통 원년(529)’으로 고쳐보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세주에 달았다.

주지하다시피 공주는 527년 당시 신라의 웅천주가 아니라 백제의 왕도 웅진성이 위치한 곳이었다. 따라서 법흥왕이 웅천주(공주)에 대통사를 세웠다고 한 『삼국유사』 본문 기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 공주가 신라의 땅이라고 한 일연 스님의 견해도 모두 잘못이다. 때문에 대통사의 창건 주체는 백제 성왕으로 고쳐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국유사』 본문에 나오는 대통사 창건 연대 527년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분이 일연 스님이었다. 그 이유는 527년에 법흥왕이 신라 왕도에 흥륜사를 창건하였기 때문에 같은 해에 웅천주에 대통사를 지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연 스님은 대통사의 창건 시기를 2년 늦추어 중대통 원년(529)년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 해에 두 절을 세울 겨를이 없었다’는 이유는 일연 스님의 주장에 불과하다. 설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중대통 원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대통사는 법흥왕이 세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대통 원년설은 성립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정미년 보다 2년 빠른 525년에 대통사가 세워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³⁾ 이 견해는 『삼국유사』 원문의 기사는 양 무제의 동태사 창건 연대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된 연대이고, 실제로는 성왕이 아버지 무령왕의 삼년상(523~525)이 끝나는 기간에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것이라는 입장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대통사의 이름도 양 무제의 연호 ‘대통’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법화경』의 ‘大通佛’에서 따왔다고 보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통사와 관련한 『삼국유사』 원문을 쓴 사람은 대통사의 창건 목적, 창건 시기, 사찰 이름이 나온 배경 등을 모두 고친 것이 된다. 그러나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사찰 창건은 상례에 맞추어 완공할 수도 있지만 상례를 마친 이후에도 지을 수 있다. 비록 조금 뒤의 일이지만 위덕왕이 554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567년에 妹兄공주와 함께 능사를 창건한 것이 그 예가 된다. 따라서 부왕의 상례를 마치는 기간에 사찰을 완공하였다고 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설정한 연대에 지나지 않으며, 상례 기간 중에 대토목 공사를 일으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대통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를 분석하여 창건 연대를 534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 기와는

3)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연구』 솔벗한국학총서 19, 지식산업사, 102~130쪽; 2018, 「공주 대통사와 동아시아 불교-삼국유사 ‘원종흥법 염축멸신’의 비판적 검토-」 『백제문화』 58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4) 清水昭博, 2003, 「백제 대통사지 수막새의 형성과 전개-중국 남조 조와기술의 전파」 『백제연구』 38집, 충남대 백

물질 자료이다. 물질 자료에 확실한 명문이 없으면 모두 상대편년이지 절대 연대를 말할 수 없다. 대통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에 연대를 보여주는 명문은 ‘대통’이란 연호 이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중대통 6년에 해당되는 534년(성왕 12)에 성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을 근거로 기와 편년에 절대연대를 부여한 견해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삼국유사』의 대통사 관련 기사는 일연 스님이 처음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연 스님이 인용한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원 자료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서 대통사의 창건 연대를 정미년(527)으로 하였을 것이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 원 자료를 만든 사람이 동태사의 창건 연대에 맞추기 위해 525년에 지어진 대통사의 창건 시기를 2년 늦추어 정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해 주는 자료는 없다. 더구나 대통사의 창건 연대는 ‘대통’을 연호로 볼 때만 알 수 있다. ‘대통’을 연호로 보지 않으면 대통사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음은 물론이다. 연호로서의 대통을 인정하지 않고 도출해낸 창건 연대는 모두 추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대통사의 창건 연대는 정미년(527:성왕 5)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사지와 부소산성 발굴조사에서 나온 ‘대통’명 기와와 공산성에서 출토된 ‘대통사’명 벼루도 모두 대통 연호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는 바이다.

2. 백제와 양 무제

삼국시대에 한 나라가 사찰을 지을 때 다른 나라 황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필자의 管見으로는 현재의 사료에서 두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대통사의 창건이고, 다른 하나는 신라의 望德寺 창건이다. 망덕사는 신라가 사천왕사를 조영하고 文豆婁 비법을 써서 당나라 수군을 물리침에 따라 생겨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나라 황제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명분으로 세운 절이다.⁵⁾ 백제의 대통사는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양 무제의 정치를 본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사와 망덕사는 조영 동기나 목적이 다르다.

대통사 창건은 양 무제와 떼어 놓을 수 없다. 양나라 초대 황제인 양 무제는 송 대명 8년(464)에 태어나서 양 태청 3년(549)에 돌아갔으므로 향년은 86세였다. 즉위 연도는 502년이고, 재위 기간은 48년이었고, 즉위할 때의 나이는 48세였다. 이는 백제 무령왕이 501년에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0세였던 것과 비슷하다. 양 무제의 재위기간 48년은 무령왕의 재위기간 23년과 성왕의 재위기간 32년을 합한 총 53년과 거의 겹친다. 양 무제의 재위 기간은 백제 무령왕과 성왕의 재위 기간인 것

제연구소.

5)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문무왕 법민조의 “…高宗召文俊曰 汝國有何密法 再發大兵 無生還者 文俊奏曰 陪臣等來於上國一十餘年 不知本國之事 但遙聞一事爾 厚荷上國之恩 一統三國 欲報之德 新羅天王寺於狼山之南 祝皇壽萬年…高宗聞之大悅 乃遣禮部侍郎樂鵬龜 使於羅 審其寺 王先聞唐使將至 不宜見茲寺 乃別創新寺於其南 待之 使至曰 必先行香於皇帝祝壽之所天王寺 乃引見新寺 其使立於門前曰 不是四天王寺 乃望德遙山之寺 終不入 國人以金一千兩贈之 其使乃還奏曰 新羅天王寺 祝皇壽於新寺而已 因唐使之言 因名望德寺…” 참조.

이다.

양 무제는 재위 기간 동안 백제를 특별히 대우하고 백제에 선진문물을 많이 전해주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 무제는 무령왕에게 고구려보다도 높은 장군호를 수여하였다. 양 무제는 고구려가 보통 원년(520) 춘정월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자 2월에 고구려왕 안(安:안장왕)을 “寧東將軍高麗王”으로 책봉하였다⁶⁾. 반면에 양 무제는 백제와 신라가 보통 2년(521) 11월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자 백제 무령왕에게 종래의 鎮東大將軍에서 寧東大將軍으로 進號해 주었다.⁷⁾ 그러나 신라왕 募秦(법흥왕)에게는 아무런 작호를 수여하지 않았다.

무령왕이 521년에 받은 영동대장군은 정2품으로 고구려 안장왕이 받은 정3품인 영동장군보다 위계가 높다. 중국 왕조가 고구려왕과 백제왕에게 수여한 장군호에서 격차가 이렇게 뚜렷하게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양 무제가 무령왕을 우대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대한 배경으로 주목되는 것이 무령왕이 521년에 사신을 보내 “처음에는 고구려에 격파되어 여러 해 쇠약하였지만 이제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한 사실이다.⁸⁾ 양 무제는 무령왕의 이 선언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 사서 고구려왕보다 높은 장군호를 수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양 무제의 조치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무령왕의 위상을 높여 주었다. 『무령왕릉묘지석』에 ‘백제왕’과 더불어 ‘영동대장군’이 나오는 것은 영동대장군호가 당시 백제에 준 의미가 컸음을 보여준다.⁹⁾

둘째, 양 무제가 무령왕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사를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의 문헌 자료에는 양 무제가 조문사를 보냈다는 기사는 없지만 이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오수전, 청자사이호, 흑유병, 등잔 등 다양한 중국제 물건이다. 이 가운데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령왕릉 묘지석』 위에 놓인 철제 五銖錢이다.¹⁰⁾ 백제는 철전을 주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오수전은 양나라에서 주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나라는 보통 4년(523) 12월에 처음으로 철전을 주조하였으므로¹¹⁾ 이 오수전은 524년에 백제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6) 『양서』 권3 본기제3 무제 하 보통 원년조의 “春正月乙亥朔 改元 大赦天下…庚子 扶南高麗國各遣使獻方物 二月癸丑 以高麗王世子安為寧東將軍高麗王” 참조. 『양서』 권54 열전제48 제이 고려전과 『삼국사기』 권제19 고구려본기 안장왕 2년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7)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무령왕 21년조의 “…十二月 高祖詔冊王曰 行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餘隆 守藩海外 遠修貢職 迺誠款到 朕有嘉焉 宜率舊章 授茲榮命 可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 참조.

8) 『양서』 권54 열전 제48 제이 백제전의 “普通二年 王餘隆始復遣使奉表 稱累破句麗 今始與通好 而百濟更爲強國”;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무령왕 21년조의 “冬十一月 遣使入梁朝貢 先是爲高句麗所破 衰弱累年 至是上表 稱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強國” 참조.

9) 신라의 경우 진덕왕 이후 당나라의 세계관에 편입되었음에도 왕의 직함을 쓸 때 중국 책봉호를 쓴 예는 보이지 않는다. 『문무왕릉비』 標題의 “…國新羅文武王陵之碑”가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오면 헌강대왕을 太傅王으로 표기한 것에서 보듯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작호를 사용한 사례가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聖住寺朗慧和尚碑』의 “太傅王神筆所紀” 참조.

10) 국립공주박물관, 2009, 『무령왕릉 1』 신보고서, 79쪽.

11) 『양서』 권3 본기제3 무제 하 보통 4년조의 “十二月戊午 始鑄鐵錢” 참조.

이해는 무령왕이 돌아간 후 이듬해이다. 그런데 524년에 양 무제는 성왕을 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으로 책봉하였다.¹²⁾ 양 무제가 백제에 사신을 보내 성왕을 책봉하였는지 아니면 성왕이 부왕의 사망을 알리기 위해 양나라에 보낸 告哀使를 통해 책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경우이든 양 무제는 성왕을 책봉하기 전에 또는 성왕을 책봉하면서 무령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서와 함께 賻儀物을 보냈을 것이다. 이 부의물이 새로 만든 오수전과 무덤 내부를 밝힐 등잔, 술을 담는 자기 등의 물품이 아니었을까 한다.¹³⁾

셋째, 양 무제는 성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524년에 성왕을 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으로 책봉하였다. 성왕에게 수여한 수동장군은 정3품으로서 무령왕에게 수여한 정2품 영동대장군보다 한 등급 낮다. 양 무제가 성왕에게 아버지 무령왕보다 한 등급 낮은 장군호를 수여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때의 책봉은 성왕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무령왕이 죽고 성왕이 즉위한 틈을 타서 523년 8월에 패수를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¹⁴⁾ 예상 밖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성왕에게 양 무제의 책봉은 시의적절 하였고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우호관계 속에서 백제는 양나라의 선진문물을 적극 받아들였다. 무령왕은 양 무제를 본받아 유학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고 또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오경박사를 설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성왕은 남조의 무덤인 터널형의 전축분을 본받아 무령왕릉을 전축분으로 만들고, 왕릉 내에 묘지석을 넣고, 진묘수를 부장하고, 삼년상을 치렀다. 이러한 장례 방식과 3년상 제도는 백제가 양나라의 장례 문화를 적극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¹⁵⁾

유교 이념이나 장례 문화 등 정신문화 이외에 백제는 양나라의 선진 기술 문화도 받아들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송산리 6호분에서 출토된 “梁官宣(瓦?)爲師矣”가 새겨진 벽돌이다. 이 명문은 백제가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양나라로부터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양 무제 시기에 백제와 양나라는 국제관계상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활발히 교섭과 교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왕은 양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확인하고 그러한 문물을 만들어낸 양 무제의 정치를 자신의 새로운 정치의 지향점으로 삼지 않았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12) 『양서』 권제54 열전 제48 제이 백제전의 “五年 隆死 詔復以其子明為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 참조. 동일한 내용이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성왕 2년조에 나온다.

13)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중국 왕조가 백제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賻物을 보낸 기사가 나오는 것은 무왕이 돌아가셨을 때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권제27 백제본기 무왕 42년조의 “春三月 王薨 諡曰武 使者入唐 素服奉表曰 君外臣扶餘璋卒 帝舉哀玄武門 詔曰…式表哀榮 贈光祿大夫 賻賜甚厚” 참조.

14)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성왕 즉위년조의 “秋八月 高句麗兵至湞水 王命左將志忠 帥步騎一萬 出戰退之” 참조.

15) 권오영, 2005, 『고대동아시아 문명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3. 성왕의 새 정치 표방과 대통사

1) 새 정치의 표방

성왕이 대통사를 지은 목적에 대해 『삼국유사』에는 양 무제를 위한 것으로만 나온다. 그러나 대통사 창건 배경은 성왕 즉위 초의 긴박한 상황과 연관시켜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상황이란 고구려가 성왕이 즉위한 후 3개월 만인 523년 8월에 패수를 공격해 온 사건이다. 고구려의 이번 공격은 비유왕이 죽고 개로왕이 즉위한 후 1개월 뒤에 공격한 것에¹⁶⁾ 이은 두 번째이다. 전왕이 돌아가고 신왕이 즉위한 틈을 타서 상대국을 공격하는 것은 대개는 삼갔다. 흥례 때에 공격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신라 혁거세왕대의 일이지만 마한왕이 돌아가자 신하들이 마한을 공격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혁거세왕이 “남의 불행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않다”고 하면서 도리어 사신을 보내 弔慰하였다는 것이 그 사례가 된다.¹⁷⁾ 그럼에도 고구려가 공격을 단행한 이유는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령왕이 521년 10월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하여 갱위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에 대한 고구려의 보복적 반격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무령왕이 죽고 성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알 수는 없는 무슨 일이 벌어져 백제 내부의 상황이 매우 혼란해지자 이 틈을 타서 공격하였을 가능성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구려가 공격해 오자 성왕은 좌장 志忠으로 하여금 보기 1만을 거느리고 가서 격퇴하게 하였다. 다행히 백제군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공격은 성왕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에 성왕은 무령왕 서거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응해 나가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성왕은 새로운 정치를 펴야 했다. 이때 새로운 정치의 지향점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부왕에 대한 추복이다. 추복은 부왕의 명복을 빚고 동시에 부왕의 뜻을 잘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미도 지닌다. 무령왕의 뜻은 백제를 강국으로 만드는 것, 즉 ‘更爲強國’하는 것이었다. 이에 성왕은 525년 8월 12일 장례를 마친 후 부왕의 명복도 빌면서 동시에 부왕의 뜻을 이어받는 것을 다짐하는 징표로 사찰 건립을 계획하였을 것이다.

둘째, 양 무제의 정치를 새로운 정치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양 무제는 유학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先儒의 잘못을 바로잡고 옛 성인의 뜻을 열었다. 王侯와 조신들이 표를 올려 질의를 하면 모두 해석해 주었다. 양 무제의 유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그가 친히 지은 저술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양 무제가 지은 책은 『孝經義』, 『周易講疏』, 『六十四卦二繫文言序卦等義』, 『樂社義』, 『毛詩答問』, 『春秋答問』, 『尚書大義』, 『中庸講疏』, 『孔子正言』, 『老子講疏』 등 무릇 200여 권이

16) 『삼국사기』 권제3 신라본기 눌지왕 39년조의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참조.

17) 『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 혁거세왕 39년조의 “馬韓王薨 或說上曰 “西韓王前辱我使 今當其喪 征之其國 不足平也” 上曰 “幸人之災 不仁也” 不從 乃遣使弔慰” 참조.

었다.¹⁸⁾ 이에 양 무제는 유학을 적극 장려하면서 교육 기관인 국학을 잘 꾸미고, 오경에 각각 박사를 두었으며, 궁궐 서쪽에 士林館을 세웠다. 그 결과 사방의 郡國에서 많은 인재들이 학문을 쫓아 양나라 수도[京師]에 운집하였다.

한편 양 무제는 불교를 깊이 신봉하고 불경에도 밝았다. 즉위 후 중산에 大愛敬寺를, 淸溪邊에 智度寺를, 臺內에 至敬等殿 등을 세웠다. 七廟堂을 세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서 깨끗한 음식을 차리고, 매번 절을 함에 언제나 슬피 울어 좌우가 애통하였다고 한다.¹⁹⁾ 불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 『涅槃大品淨名三慧諸經義記』 수백 권을 製述하였다. 동태사에 가서 세 번에 걸쳐 捨身을 하였고,²⁰⁾ 정사를 보는 여가에는 重雲殿 및 동태사에서 강설을 하였다. 이때 강석에 참석한 명승과 석학과 사부칭중은 늘 1만여 명이었다. 또 通史를 짓고 몸소 序를 찬술했는데 무려 600권이였다.²¹⁾

이처럼 양 무제는 유교와 불교를 중심축에 두고 국가를 운영해 나갔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대동 11년(545)에 금단했던 贖刑의 부활과 관련한 기사이다. 이에 의하면 양 무제는 “관리들의 간헐함으로 기존의 형벌이 매우 무거운 것은 內典(내교 : 불교)의 자비정신에 어긋나며, 外教(유교)의 好生の 덕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상서』 虞書 大禹謨의 “與殺不辜 寧失不經”을 언급하고 있다.²²⁾ 즉 양 무제는 불교의 자비정신과 유교의 애민정신으로 통치를 해나가려 했던 것이다.²³⁾ 이를 ‘儒佛並治’라고 할 수 있겠다.

성왕도 양 무제처럼 유불병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성왕이 538년(성왕 16)에 사비로 천도한 후 3년 뒤인 541년(성왕 19)에 양나라로부터 모시박사, 涅槃等經義, 공장, 화사 등을 요청해 받고²⁴⁾ 또

18) 『양서』 권3 본기제3 무제 하 태청 3년조의 “五月丙辰 高祖崩於淨居殿 時年八十六 辛巳 遷大行皇帝梓宮於太極前殿 冬十一月 追尊為武皇帝 廟曰高祖 乙卯 葬於脩陵…少而篤學 洞達儒玄 雖萬機多務 猶卷不輟手…造制旨孝經義 周易講疏 及六十四卦二繫文言序卦等義 樂社義 毛詩答問 春秋答問 尚書大義 中庸講疏 孔子正言 老子講疏 凡二百餘卷 並正先儒之迷 開古聖之旨 王侯朝臣皆奉表質疑 高祖皆為解釋 脩飾國學 增廣生員 立五館 置五經博士…並撰吉凶軍實嘉五禮 凡一千餘卷 大同中 於臺西立士林館…於是四方郡國 趨學向風 雲集於京師矣” 참조.

19) 『양서』 권3 본기제3 무제 하 태청 3년조의 “五月丙辰 高祖崩於淨居殿 時年八十六 … 及居帝位 即於鍾山造大愛敬寺 淸溪邊造智度寺 又於臺內立至敬等殿 又立七廟堂 月中再過 設淨饌 每至展拜 恒涕泗滂漉 哀動左右” 참조.

20) 『남사』에는 중대동 원년에도 施身한 것으로 나오는데 『남사』 권7 양분기 중 제7 중대동 원년조의 “三月乙巳 大赦 庚戌 幸同泰寺 講金字三慧經 仍施身 夏四月丙戌 皇太子以下奉贖 仍於同泰寺解講 設法會 大赦 改元 是夜同泰寺災” 참조) 이를 합하면 양 무제의 사신은 네 번이 된다.

21) 『양서』 권3 본기제3 무제 하 태청 3년조의 “五月丙辰 高祖崩於淨居殿 時年八十六…兼篤信正法 尤長釋典 製涅槃大品淨名三慧諸經義記 復數百卷 聽覽餘閑 即於重雲殿及同泰寺講說 名僧碩學四部聽衆 常萬餘人 又造通史 躬製贊序 凡六百卷” 참조.

22) 『양서』 권3 본기제3 무제 하 대동 11년조의 “冬十月己未 詔曰 堯舜以來 便開贖刑 中年依古 許罪身入贖 吏下因此 不無姦猾 所以一日復敕禁斷 川流難壅 人心惟危 既乖內典慈悲之義 又傷外教好生之德 書云 與殺不辜 寧失不經 可復開罪身 皆聽入贖” 참조.

23) 소현수, 2010, 『梁武帝와 同泰寺』 『불교학보』 54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4)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성왕 19년조의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 涅槃等經義并工匠 畫師等 從

양나라로부터 강례박사 陸詡를 모셔온 것이²⁵⁾ 이를 보여준다. 유교정전에 정통한 박사와 유교 의례에 밝은 박사를 초빙함과 동시에 불경을 들여오고 사찰 건축 전문가를 모셔온 것은 유불병치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유불병치를 토대로 하는 성왕의 새 정치는 사비천도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배경에 양 무제가 있었던 것이다.

2) 대통사 창건

새로운 정치를 떠나감에는 이를 추진할 중심축이 필요하다. 양 무제의 유불병치에서 유교 이념의 구현은 孔子廟와 국학(국자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자학은 양나라 최고 유학 교육기관이다. 양 무제는 빈번히 국자학에 나아가 강론을 듣고, 책문을 하고, 교육을 강조하고, 교관들에게 하사품을 사여하는 등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한편 양 무제는 불교 이념의 구현은 동태사를 중심으로 해나갔다. 양 무제는 보통 2년(521) 9월 23일 동태사를 세우기 시작하여 대통 원년(527)에 완공하였다.²⁶⁾ 이해 3월에 臺城(왕궁) 북쪽에 별도로 대통문을 완공하였다. 대통문의 ‘大通’은 동태사의 ‘同泰’를 反語로 한 것이다.²⁷⁾ 동태사를 완공한 양 무제는 대통문을 통해 동태사에 와서 예불을 하고 사신을 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사신이다. 3일 후 환속하여 환궁한 양 무제는 천하에 사면령을 내린 후 연호를 보통에서 대통으로 바꾸었다. 대통으로 바꾼 것은 동태사와 대통문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바탕에는 동태사가 있었다. 이리하여 동태사는 양나라의 ‘사부대중인 道俗이 同泰’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華夷가 同泰’하는 ‘세계의 불국토’를 이루려는 ‘전륜성왕 무제’의 정치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²⁸⁾

성왕이 유불병치를 추구하고자 할 때 유교 이념 구현에 중심축이 된 것은 태학이었다. 「진법자묘지명」에 의하면 陳法子の 증조 陳春이 백제의 太學正으로 나온다.²⁹⁾ 진법자는 615년에 백제에서 태어나 백제 멸망 후 당나라에 들어가 벼슬을 살다가 690년에 사망하였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之” 참조.

25) 『陳書』 권33 열전 제27 유림 鄭灼傳 附 陸詡의 “陸詡少習崔靈恩三禮義宗 梁世百濟國表求講禮博士 詔令詡行…” 참조.

26) 『歷代三寶記』 권3(『大正新脩大藏經』 49, 45쪽 上)의 “…(庚子)普通元…九月二十三日建立同泰寺 初暨刹 帝親自幸 百司盡陪… (丁未)大通元年 同泰寺成 帝親幸 改元 大赦” 참조. 대통사 창건 시기와 관련하여 원광대학교의 소현숙 선생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자료 제공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한백만 회원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7) 『남사』 권7 梁本紀 中 제7 대통 원년조의 “春正月乙丑…初 帝創同泰寺 至是開大通門 以對寺之南門 取反語以協同泰 自是晨夕講義 多由此門 三月辛未 幸寺捨身 甲戌還宮 大赦 改元大通 以符寺及門名” 및 『歷代三寶記』 권11(『大正新脩大藏經』 49, 45쪽 上)의 “普通八年 造同泰寺成 樓閣殿臺房廊綺飾陵雲九級壯麗魏永寧 開大通門 對同泰寺 因號大通 元年三月六日 駕每親臨幸寺禮懺” 참조.

28) 소현숙, 2010, 「梁武帝와 同泰寺」 『불교학보』 54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9) 「진법자묘지명」의 “曾祖春本邦太學正 恩率” 참조.

증조 진춘의 활동 시기는 520년대 즉 무령왕 대에 해당된다.³⁰⁾ 진춘이 태학정이 되었다는 것은 무령왕 대에 유학교육기관인 태학이 설치되었고 그 장관으로 正이 두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 태학에서 교육을 담당한 것이 오경박사이다. 그런데 무령왕은 재위 13년(513)에 오경박사 段楊爾를 왜에 파견하였고, 재위 16년(516)에 오경박사 漢 高安茂를 왜에 파견하였다.³¹⁾ 이로 미루어 태학이 설치된 시기는 늦어도 510년대로 볼 수 있다. 태학의 설치로 백제에서 유학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왕은 유교 이념을 강조한 부왕을 본받아 부왕이 설치한 태학을 중심으로 유교 이념을 구현하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한편 성왕은 불교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였다. 그 사찰이 바로 대통사이다. 대통사의 ‘대통’은 양 무제의 ‘대통’ 연호에서 따왔다. 연호 ‘대통’은 동태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성왕의 대통사도 동태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성왕이 새로 지은 사찰 이름을 대통사로 하고 사찰 건립의 목적을 양 무제를 위한 것으로 내건 것은 양 무제가 동태사를 창건하여 불국토를 이루려 한 것처럼 대통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부왕이 추구한 ‘경위강국’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한국고대 사찰에서 대통사의 역사적 의미

1. 삼국의 사찰

삼국이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유교의 수용과 불교의 공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교의 수용은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하여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한 정치운영은 관료의 선발과 연관된다. 삼국은 중앙집권체제 확립 이후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들을 관료로 선발하였다. 유교 정치이념은 국왕에 대한 ‘충’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관료선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율령의 반포이다. 율령은 일원적인 통치의 기준이 되는 성문법전인데 教諭를 宗으로 하는 영과 徵正을 본으로 하는 율은 유교의 근본이념인 ‘인’의 실천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율령의 반포도 유교 정치이념을 구현하는 방편의 하나였다.

한편 왕권의 신성화와 호국사상의 강조는 불교를 통해 구현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巫敎신앙은 불교 신앙에 속에 편입되었고, 국왕 중심의 사상 체계는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삼국은 불교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신앙의 도량으로 경향 각지에 사찰을 세웠다. 고구려의 경우 372년

30) 김영관, 2014, 「백제 유민 진법자 묘지명 연구」 『백제문화』 50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31)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7년조 및 10년조.

(소수림왕 2)에 불교를 공인한 후 375년(소수림왕 5)에 肖門寺와 伊弗蘭寺를 세웠다.³²⁾ 이 두 절은 불교가 공인된 이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절이다. 그러나 절의 위치는 알 수 없다. 이후 광개토대왕은 평양에 9사를 창건하였다.³³⁾ 이는 평양 경영을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의 위치는 역시 알 수 없다. 문자명왕은 498(문자명왕 7)에 금강사를 창건하였고,³⁴⁾ 보장왕 9년(650) 조에는 반룡사가 보인다.³⁵⁾ 한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확인된 고구려 사찰 유적으로는 원오리사지, 토성리사지, 정릉사지, 상오리사지, 청암리사지 등이 있다.³⁶⁾ 그렇지만 절 이름과 창건 연대는 모두 알 수 없다.

백제의 경우 384년(침류왕 원년)에 불교를 공인한 후 한산에 절을 세웠지만 절 이름과 위치는 알 수 없다. 한성도읍기에 불교와 관련한 유물로는 독섬에서 출토된 금동불좌상불상과³⁷⁾ 5세기 중엽 이후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³⁸⁾ 등이 있을 뿐이다. 웅진도읍기의 사찰로는 서혈사, 남혈사 등의 穴寺와³⁹⁾ 흥륜사, 대통사 등의 사찰 이름이 확인되고 있다. 사비천도 이후에는 많은 사찰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주서』 백제전에는 승려와 사탑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⁴⁰⁾ 부여에는 정림사지를 비롯하여 군수리사지, 능사, 왕흥사지, 서복사지 등이 보이고, 익산에는 미륵사지, 제석사지, 大官寺 등이 보인다. 그러나 백제의 사찰 가운데 창건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공주 대통사지, 부여의 능사와 왕흥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정도이다.

신라의 경우 최초의 사찰은 527년(법흥왕 14)에 착공하여 544년(진흥왕 5)에 완공된 흥륜사이다. 흥륜사의 위치는 현재 경주공고 자리로 비정되고 있다. 황룡사는 553년(진흥왕 14)에 시작하여 17년 만인 566년(진흥왕 27)에 완성되었다. 기원사와 실제사는 566년(진흥왕 27)에, 삼랑사는

32) 『삼국사기』 권제18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2년조의 “夏六月 秦王苻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以貢方物 立大學 教育子弟”; 4년조의 “僧阿道來”; 5년조의 “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참조.

33) 『삼국사기』 권제18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2년조의 “秋八月…創九寺於平壤” 참조.

34) 『삼국사기』 권제19 고구려본기 문자명왕 7년조의 “秋七月 創金剛寺” 참조.

35) 『삼국사기』 권제22 고구려본기 보장왕 9년조의 “夏六月 盤龍寺普德和尚 以國家奉道 不信佛法 南移完山孤大山” 참조.

36) 고구려의 사찰에 대해서는 강병희, 2013, 「백제와 고구려의 사찰과의 비교」 『백제 사찰과 주변국 사찰과의 비교 연구-정림사지와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재)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원광대학교 박물관 참조.

37) 김원룡, 1961, 〈독도출토 금동불좌상〉 《역사교육》 5집, 역사교육학회.

38) 한신대학교박물관, 2008,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2차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2008 풍납토성 197번지 일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문동석, 〈한성백제의 도교문화와 그 성립과정〉, 《백제연구》 50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39) 발굴 결과 이 혈사들은 백제보다는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의 사찰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는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공주 동혈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김영배·박용진, 1970, 「공주 서혈사지에 관한 조사연구(1)」 『백제문화』 4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조원창, 1999, 「서혈사지출토 석상불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역사교육』 3-4호, 웅진사학회 참조.

40) 『주서』 권49 열전 제41 이역 상 백제전의 “僧尼寺塔甚多 而無道使” 참조.

597년(진평왕 19)에, 분황사는 634년(선덕여왕 3)에, 영묘사는 635년(선덕여왕 4)에 완성되었다. 태종무열대왕은 659년(태종왕 6)에 한산(서울)에 莊義寺를 창건하였다. 이외에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는 사찰로는 애공사, 영흥사, 영경사 등이 있다.

2. 대통사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527년에 지어진 대통사는 다른 사찰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대통사는 삼국시대에 세워진 여러 사찰 가운데 위치가 확인된 가장 빠른 사찰이다. 따라서 대통사의 가람 양식과 건축 구조와 부재, 불상 장엄 장식 등은 이후 가람의 전범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대통사는 ‘대통’이란 연호를 따서 지어졌다는 것이다. 사찰 이름은 대개 불교적 성격을 지닌 이름으로 짓는데 연호를 따서 지은 것은 대통사가 유일하다. ‘대통’은 동태사의 ‘동태’를 反語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사는 양 무제가 지은 동태사를 본으로 하여 지었다. 이는 대통사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셋째, 사찰은 건립 목적에 따라 이름이 지어지기도 한다. 불교의 흥포를 위한 것이라든가, 원찰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사는 양나라 무제를 위해 절을 지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황제를 위해 절을 지은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신라의 경우 문무왕이 당나라 황제의 축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망덕사를 지었지만 그 목적은 당나라에 침략에 대비해 지은 사천왕사에 대한 당나라의 책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사찰의 성격은 외국 황제를 위한다는 명목에서는 동일하지만 백제의 경우 평화적인 관계에서, 신라의 경우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넷째, 대통사는 모후의 장례 기간(526.11~529.2)에 지어졌다는 점이다. 사찰 창건은 토목사업이므로 상례 기간에 절을 짓는 것과 같은 토목사업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예이다. 그럼에도 성왕은 상례 기간에 대통사를 지었다. 아마도 성왕은 525년 8월 12일 부왕의 상례를 마친 후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절의 창건을 시작하였는데 모후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상례 기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 결과 대통사 창건은 다른 사찰의 창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가 되었다.

다섯째, 대통사는 삼국의 사찰 가운데 창건 연대, 창건 주체, 창건 목적, 절의 위치, 절의 이름 모두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이다. 신라의 경우 불교를 공인하면서 지은 흥륜사, 황룡사 등은 창건 연대, 창건 주체, 창건 목적 등은 모두 알 수 있다. 그러나 흥륜사는 527년에 기공하였지만 완공 시기는 544년(진흥왕 5)이어서 대통사보다 17년이나 늦다. 황룡사는 553년(진흥왕 14)에 시작하여 566년(진흥왕 27)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대통사 보다 늦었음은 물론이다. 고구려의 경우 정릉사지는 ‘定陵’이 새겨진 기와에 의해 위치가 분명하고 능사의 성격을 갖는 사찰임을 알 수 있지만 창건 주체와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평양 청암리토성 안에 위치한 청암리사지는 고구려 문자명왕 7년(498)에 세워진 금강사로 파악되고 있어 창건 연대는 대통사보다 빠르다. 그러나 금강사는 창건 주체와

창건 목적을 알 수 없고 또 청암리사지가 금강사임을 확정지어 줄 수 있는 ‘金剛’이 새겨진 기와 등의 유물도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여섯째, 공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는 반죽동 石蓮池는 대통사지에 있었던 것을 옮겨와 전시한 것이다. 이 석연지는 백제 대통사와 연관되는 석물이다. 석연지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석조물로 사찰에서 연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화재를 예방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사찰에는 석연지가 종종 만들어졌다. 신라 성덕왕 19년(720) 경으로 추정되는 법주사 석연지(국보 제64호)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통사지 석연지는 삼국의 사찰에 두어진 석연지 가운데 연대가 가장 빠르다. 또 이 석연지는 크기도 크고 석조 기술도 빼어나다. 이 석연지는 백제 석조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며 크기와 정교함은 대통사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IV. 앞으로의 과제 : 맺음말에 대신하여

한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한 대통사지 발굴 조사는 대통사의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현재의 대통사지가 대통사가 위치한 곳임을 확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맺음말에 대신하여 대통사지에 대한 연구, 보존, 관리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해 두기로 한다.

첫째, 대통사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사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굴을 통해 대통사의 규모와 가람구조가 밝혀지면 이는 한성도읍기의 가람구조를 추정하고, 사비도읍기의 가람구조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둘째, 대통사는 백제와 신라를 통틀어 창건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절이다. 따라서 대통사지 발굴을 통해 확인된 건물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 건물지이고, 여기에서 출토된 치미, 망새, 암막새, 수막새, 소조불상 등은 모두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 건축 부재와 장식품이고 불상이 된다. 앞으로 전면 발굴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건물지들이 확인되고 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될 것이다. 따라서 발굴을 통해 확보되는 각종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대통사는 양나라 동태사를 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양나라 사찰 문화가 백제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므로 대통사를 중심으로 백제와 양나라의 불교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통사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미륵불을 모신 흥륜사이다. 「미륵불광사사적기」⁴¹⁾에 의하면 흥륜사는 늦어도 무령왕 대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신라는 불교를 공인한 후 흥륜사를 세우고 여기에 미륵불을 모셨다. 신라의 흥륜사는 사찰 이름과 모신 부처가 미륵불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무

41) 이능화, 1918, 「미륵불광사사적기」, 『조선불교통사』 상편, 보림각.

령왕 대에 조영된 백제 흥륜사를 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⁴²⁾ 따라서 대통사와 흥륜사를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의 불교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현재 대통사지는 사역 전체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람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輕部慈恩의 대통사지 가람배치도에⁴³⁾ 의하면 1탑-1금당일 가능성이 크다. 사비도읍기의 백제 사찰의 대다수는 1탑-1금당식이다. 다만 군수리사지는 1탑-3금당식이고, 미륵사지는 3탑-3금당식인데 이는 특수한 경우라 할 것이다. 고구려 사찰의 경우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가람구조는 1탑-삼금당식이 대다수이다. 탑의 경우 팔각탑이 수적으로 많다. 정릉사지 8각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라의 경우 황룡사지와 분황사는 1탑-3금당식이다. 양나라 동태사의 경우 『건강실록』에는 “9층 부도와 대전 6곳, 소전 및 당 10여 곳이 있다”⁴⁴⁾고 하고 있으므로 9층목탑에 금당이 여럿인 多院落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전에 모신 주불은 시방불이었다.⁴⁵⁾ 고구려, 신라 그리고 동태사는 1탑-다금당의 형식인데 반해 백제는 처음부터 1탑-1금당 가람배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대통사지는 탑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몇 층탑인지 알 수 없다. 사비도읍기의 탑은 거의 모두가 5층 목탑이다. 따라서 대통사의 탑도 5층 목탑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익산 미륵사의 경우 중원은 9층 목탑이고 동원과 서원의 탑은 9층 석탑이며, 제석사지는 7층 목탑이다. 미륵사지 중원의 9층목탑과 제석사지 7층목탑은 무왕이 삼국을 일통하려는 목적에서 특별히 만든 것이어서⁴⁶⁾ 특수한 사례로 두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 『삼국유사』 高麗靈塔寺조에 ‘八面七級石塔’이라 하여 8각7층탑이, 遼東城育王塔조에 “木塔七重”이라 하여 7층탑이 보인다. 신라의 경우 통일 이전의 황룡사에는 9층 목탑이, 분황사에는 7층 모전석탑이 만들어졌다. 이후의 신라 탑은 거의 3층 석탑이고, 5층탑은 나원리 5층 석탑 정도에 불과하다. 백제에서 5층탑이, 신라에서 3층탑이 주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앞으로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통사는 양 무제를 위한 목적과 부왕 무령왕과 모후를 추복하는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사찰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찰을 지을 때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사찰의 위치이다. 대통사는 제민 천 건너편에 지어졌다. 공주 시가지의 전체적인 지형에서 보았을 때 대통사의 위치는 시가지 중심에서 벗어난다. 이는 양 무제가 동태사를 지을 때 종래처럼 도성의 남쪽에 사찰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왕궁 북쪽에 자리를 잡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대통사의 위치 선정이 갖는 의미를 동태사와 연관하여 천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42) 노중국, 2000, 「백제와 신라의 교섭과 교류-6~7세기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7·18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43) 輕部慈恩(遺著), 1971, 『百濟遺蹟の研究』, 길천홍문관;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대통사지』, 12쪽.

44) 許嵩 撰·張忱石 點校 『建康實錄』 권17 高祖武皇帝.

45) 소현숙, 2010, 「梁武帝와 同泰寺」 『불교학보』 54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46) 노중국, 2018, 「백제 무왕의 출계와 천하관」 『백제학보』 25호, 백제학회.

일곱째,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왕궁, 능묘 그리고 사찰이다. 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도로이다. 대통사는 제민천 건너편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민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이용된 다리는 동성왕 20년(498)에 설치한 熊津橋일 것이다.⁴⁷⁾ 성왕은 웅진교를 건너 대통사를 참배한 후 다시 송산리 왕릉으로 갔을 것이다. 따라서 웅진 도성의 시가지 구획과 도로망도 대통사로 가는 다리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2015년 7월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유산이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때 공주 지역의 유산 가운데 공산성은 통치공간으로, 송산리고분은 능묘공간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념공간인 대통사지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통사지의 위치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발굴로 대통사지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통사지의 전모를 드러내고 잘 보존하고 연구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공주 지역의 백제 유산은 통치공간, 능묘공간, 이념공간 모두를 갖추게 될 것이다.

아홉째, 공주에서의 古都 보존은 단순히 옛 도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 왕도로서의 고도를 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제 왕도의 모습을 밝히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대통사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공주지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부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고도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짝퉁 도시를 만들기 전에 왕도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18. 12. 28

심사완료일 : 2019. 02. 07

게재확정일 : 2019. 02. 09

47)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동성왕 20년조의 “設熊津橋” 참조.

「참고문헌」

- 강병희, 2013, 「백제와 고구려의 사찰과의 비교」, 『백제 사찰과 주변국 사찰과의 비교 연구—정립사지와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재)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원광대학교 박물관.
- 輕部慈恩(遺著), 1971, 『百濟遺蹟の研究』, 길천흥문관.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대통사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2008 풍납토성 197번지 일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권오영, 2005, 『고대동아시아 문명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 김영관, 2014, 「백제 유민 진법자 묘지명 연구」, 『백제문화』 50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 김영배·박용진, 1970, 「공주 서혈사지에 관한 조사연구(1)」, 『백제문화』 4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원룡, 1961, 「독도출토 금동불좌상」, 『역사교육』 5집, 역사교육학회.
- 노중국, 2000, 「백제와 신라의 교섭과 교류—6~7세기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7·18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노중국, 2018, 「백제 무왕의 출계와 천하관」, 『백제학보』 25호, 백제학회.
- 문동석, 「한성백제의 도교문화와 그 성립과정」, 『백제연구』 50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 소현숙, 2010, 「梁 武帝와 同泰寺」, 『불교학보』 54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연구』 솔벗한국학총서 19, 지식산업사.
- 조경철, 2018, 「공주 대통사와 동아시아 불교—삼국유사 ‘원종홍법 염촉멸신’의 비판적 검토—」, 『백제문화』 58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 조원창, 1999, 「서혈사지출토 석상불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역사교육』 3-4호, 웅진사학회.
- 清水昭博, 2003, 「백제 대통사지 수막새의 형성과 전개—중국 남조 조와기술의 전파」, 『백제연구』 38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공주 동혈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8,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2차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8, 『공주 반죽동 한옥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보도자료』.

King Seong of the Baekje Kingdom and Daetongsa Temple

Noh, Choong Kook
(Keimyung University)

Daetongsa temple was built in 527 by King Seong of the Baekje Kingdom. Some artifacts of the Baekje Kingdom were unearthed by a recent excavation at the site of Daetongsa temple, Banjuk-dong, Gongju-si, which turned out to be a place where Daetongsa temple was built.

King Seong built Daetongsa temple in order to inherit the will of King Muryeong, his father, "to make the Baekje Kingdom a strong nation again," and to carry out new politics based on the example of Emperor Wu of the Liang dynasty who built Tongtai temple and conducted a policy of governing the country using Buddhism.

Daetongsa temple is a key resource for understanding Korean ancient Buddhism history because it is the newest temple among Korea's ancient temples whose founding subject, timing, and purpose are known. Therefor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Gongju-si Municipality should conduct a systematic academic excavation to identify the whole aspect of Daetongsa temple site.

Key words : Daetongsa temple, Tongtai temple, Emperor Wu of the Liang dynasty, a policy of governing the country using Buddhism, new politics

